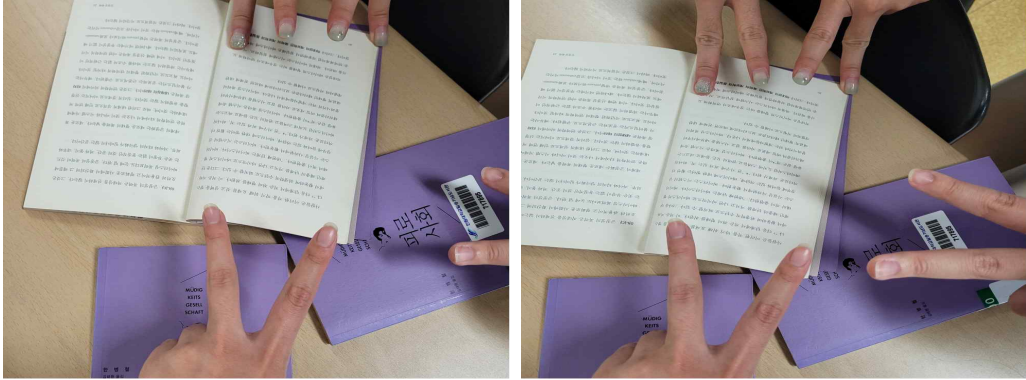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등등등 / 책을 영어로 하면 'book(북)' (북을 읽는 소리)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 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원	학번	2019****	이름	김*주
	학번	2021****	이름	최*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첫 토의는 책 “피로사회” 1부 (피로사회)까지 읽고 진행하였습니다.</b></p> <p><b>1. 느낀 점 &amp; 감상평</b></p> <p><b>김*원:</b> 저는 정말 피로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학책이다 보니 책의 첫인상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읽기는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과 장 하나하나의 담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읽으면서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진 것 같습니다.</p> <p><b>김*주:</b> 저는 피로라는 것이 단순히 책 제목만 보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겠구나’ 하고 봤는데 오히려 책에서는 피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후기 근대사회 중심으로 써서 조금 인상 깊었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단순히 필요한 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거니까 개인적인 역량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사육장 같이 쓴 표현도 기억에 남습니다.</p> <p><b>최*진:</b> 저는 일단 사실 책이 얇아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비문학을 읽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또, 피로라는 말만 들었을 때 안 좋은 쪽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챕터별로 뭔가 이 피로를 보는 느낌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로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로가 뭔지에 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p>							

## 2. 기억에 남는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

### (1) 자유에 관한 생각

**최\*진:** 책 28쪽에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이러한 자유로운 삶 역시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로부터 강제를 받는 게 아닐까?’ 자유가 좋은 거고, 자유를 추구해야 하고 ‘이런 거 역시 뭔가 강제, 압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잘 못 쓰는 편이거든요. 그냥 항상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인데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자유도 좀 강제를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 저도 이거랑 비슷하게 인상 깊었던 게 책 48쪽에 “더 활동적일수록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학 일기가 떠올랐는데 대학 일기 작가분이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됐었는데 대학교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표 의식도 없고 ‘내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는 말이 이거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유로워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눕고 싶으면 눕고, 피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남들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남들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난 뭐 하는 거지?’, ‘나는 뭘 처지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게 나를 좀 더 통제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진:** 그래서 그게 결국 또 ‘피로사회가 자기 착취의 사회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돌아와서 또 그런 자율과 또 본인이 본인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깎게 되고 이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김\*주:** 그래서 30쪽 ‘깊은 심심함’이라는 장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때리고 있는 게 동물과 같다고 비교하거든요. 동물이 먹이를 먹을 때 다른 무리에게 뺏기지 않을지 안 그러면 이 먹이는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계속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오히려 자기 착취적이고 본인을 깎아 먹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는 행위가 더 고차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멍때리기 대회도 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 (2) 자기 착취에 대한 반성과 각자의 시각

**김\*원:** 저는 책 47쪽에 “인간은 보는 것을 배워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말하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의 목표는 니체에 따르면 ‘고상한 문화’라고 나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배워왔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해왔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사회가 이렇게 바라니까 내가 이제껏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걸 느꼈고, 피곤하게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춰 있어서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휴식이나 균형에 맞춘 삶이라는 게 있을 텐데 좀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균형을 사회에 맞춰줘서 내가 오히려 휴식이나 이런 걸 오히려 못 즐기면서 살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고상한 문화와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상류층과 상류층이 즐기는 고유의 문화가 있고 승마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경제 교육 등 그들만이 느끼고 하면서 무의식을 쌓아놓은 잔재를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보면서 자신이 배운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색적 삶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같은 걸 봐도 교육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는 ‘그냥 돈이 없구나!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를 배운 사람은 ‘저 사람이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이런 억압을 받았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진다고 해석해서 방금 말하신 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원님은 쉴 때도 그냥 못 쉬는 타입이신가요?

**김\*원:**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재밌다고 생각하고 즐겁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내가 정말 즐거워서 했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야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막상 내가 그걸 좋아해서 한 건지 사회에서 ‘취미가 뭐야?’라고 묻기도 하고 ‘사회는 너는 왜 관심 있는 게 없어? 혹은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해서 내가 일부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찾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나의 취미가 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최\*진:** 저도 말씀하신 구절을 보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삶의 속도랑 연관 지어봤는데 뭔가 한 가지를 배울 때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는 것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후자의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천천히 나가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빨리빨리 해야 성과를 내야 하는 회사나 이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방식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얼마나 나의 이 생각에 같이 동조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일을 노동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원:** 확실히 한국 사회에서는 쉬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사회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봐주길 원하세요?

**김\*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동을 자유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오히려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중세 시대나 농사할 때는 ‘야 너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노예처럼 너 열심히 안 하면 채찍질하고 강제적이었는데 점점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노동시켜야 그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노동을 하는 방법이 채찍질에서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하면 넌 뒤쳐질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휴식도 휴식이 아니라 자기 계발의 한 종류로 넣었으면 하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누우면 됐지만, 이제는 그 휴식 시간마저 통제하려는 자신은 통제받고 있지만, 본인은 통제당하는 걸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 (3) ‘사회의 자유 규제’

**김\*주:** 또, 저는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자유라는 게 개인의 해방이라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가장한 족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진님, 미디어학과이시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같은 걸 보면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규제를 풀면 또 너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규제하는 게 맞는지?

**김\*원:** 코로나 때 보면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규제를 엄청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는 집에만 있게 해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났고, 이후에 풀렸을 때는 해방이 돼서 사람들이 너무 밖에 나와서 다시 전파되는 문제도 나타나기도 했고 그래서 양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미디어가 꼭 아니어도 정반대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주:** 저희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국가에서 살아가려면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자유가 양면성이 있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되고 이걸 안된다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떤 PD분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규제가 완화돼서 공영 방송사에 비해 더 활성화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너무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과 어차피 공영 방송사니까 그걸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 저는 자살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회수 하나 때문에 예전에는 작위적으로 쓰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자살 사건들이 있고 나서 나름의 규제가 생겨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순화해서 쓴다든가 자살 기사 맨 마지막에는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 기관 연락처를 쓰게 하는 등의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름의 사회에 적용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직

도 미디어의 폐해나 부정적인 면이 많지만 이런 규제가 만들어져서 사회가 바뀌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진:** 술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담배와 같이 규제 대상인데 드라마 ‘술도녀’나 이런 매체에서 자유롭게 노출되지만, 담배는 여전히 다 모자이크하는데 왜 둘 다 같은 선상으로 봐야 하는데 술은 자주 노출해도 괜찮고 담배는 아직도 제재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 (4) ‘긍정성의 과잉’

**김\*주:** 저는 긍정성 과잉이 나는 모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노력 안 해서 그런 거고 난 모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적당히 안 되면 끊어야 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사회에서 만능 인재를 원하다 보니 본인이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패한 인간이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원:** 저는 늘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과잉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바라보는 편이어서 이게 나쁜 건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책 ‘피로사회’ 2부 (우울 사회)까지 읽고 토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참가자대표 : 김\*원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등등등 / 책을 영어로 하면 'book(북)' (북을 읽는 소리)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 장 소 : 도서관 3층, C.Square 스터디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원	학번	2019****	이름	김*주
	학번	2021****	이름	최*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오늘은 책 '피로사회' 2부 (우울 사회)까지 읽고 두 번째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p> <p>1. 기억에 남는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기</p> <p>김*원: 저는 책 101페이지에 보면 “<u>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u>”라는 문장이 조금 와 닿았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막 학기이기도 해서 느끼는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울하고 번아웃 온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난 학기 때는 엄청 바쁘게 살고 그랬었는데 이번 학기는 막 학기니까 조금 여유가 있게 살자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과거의 저랑 비교하면서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뭐하지?’,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게 맞나?’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상황의 저와 맞는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역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말을 보면 “<u>성과사회의 압력은 끝없는 성공을 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u>”라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나 스스로가 자각해야 벗어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자기 착취에 가깝게 살아왔구나!’ 깨닫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p> <p>최*진: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일단 인상 깊었던 구절이 책 83페이지에 보면 “<u>오늘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을 철폐해 가며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하는 성과사회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u>”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방금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 등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나의 성과를 위한 나의 욕심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많이 공감됐습니다. 또, *원 님이 방금 짚어주신 부분을 저도 이야기하면 반성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자기 개개인이 반성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철폐될까?’ 사회에 어떤 구조가 나만 그렇게 안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만 도태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김*주: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책 88페이지 “<u>경험하는 인간은 타자와 마주한다.</u>”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뽑은 이유는 사실상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 열심히 하는 흐름 속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p>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만약에 누군가 계획적이라고 하면 모두가 계획을 짜고 그러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라면 계획적인 사람도 무 계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타인과 비교해서 보통 자신을 정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착하다는 기준들도 그런 것이고, 이 흐름으로 바라볼 때 여기 책에서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소진해서 자신의 성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목표로 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느끼고, 그 안에서 나를 정립할 때 ‘나는 저렇게 해야 하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 (1) 책 속에 담긴 내용 각자의 해석과 의견 나누기

**김\*주:** 제가 봤던 문장 중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은 자아 감정의 고양을 위해 의식적으로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조차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부분이예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김\*원:** 저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요즘 사회에서 나타나는 SNS 모습을 생각했어요. SNS에 나를 표현하고 타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심리가 ‘나르시시즘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 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최\*진:**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넘겼었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나르시시즘이 자기 사랑의 최고 단계라는 느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김\*주:** 저는 책 90페이지에서 “**자신을 잃고 열려 있는 공간 속에서 흩어져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걸 느꼈어요. 계속해서 목표는 넘어가고 있는데 끝은 안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 저는 그래서 이런 문장도 기억에 남는데, 책 86페이지에 “**타자와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보상의 위기가 찾아온다**”도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순간 뭔가 보상적인 것에 있어서 위기가 오는 거니까 성과주의에서는 남들의 시선과 관심이 중요하니까 그런 게 없으면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김\*주:**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말대로 자신을 보장하거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어차피 만약에 돈을 받는 것도 관계가 있어서 보상이라는 돈이 오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도 관계가 있어서 보상이 오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 책에서는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114페이지에 보면 “죽을 수 있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 죽어 있는 것이다”라는 이 말이 좀 와닿았던 게 오히려 너무 생생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에서 이상한 말을 쓰면서 고민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 (2) 과거 vs 현재

**김\*원:**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책 92페이지에 “우울증, 소진 증후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오늘날의 정신질환은 심적 억압이나 부인의 과정과는 무관하다. 긍정성의 과잉, 즉 부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으로 이런 병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부분이 지난 시간 말한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읽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늘 긍정적인 편이고 어떻게 보면 긍정성의 과잉에 가까운데 이 책은 너무 그런 건 또 안 좋다고 말해주고, 결국엔 저는 저한테 “좋은 것은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책이 10년 지난 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똑같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한 긍정이나 성과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아서 사색이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어쨌든 사회학 서적이니까 옛날에는 억압된 형태의 사회에서 우울증이 발견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노예는 집도 이사 못 가고 무조건 한 곳에서 살아야 하고 억압되는 환경에서 살았지만, 현대의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 등의 새로운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 조금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김\*원:**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나눠서 표를 그려서 생각해 보긴 했어요. 전통사회에서는 전염성 질병, ‘~해야 한다.’ 등의 과도한 책임, 규율사회 등이고 현대사회에서는 긍정성의 과잉,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성의 과잉, 우울증이나 성과사회, 자기 착취 등으로 나눠서 생각해봤습니다.

**최\*진:** 과거랑 현재 비교해서 나중에 마인드맵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 110페이지에 “성과 주체가 뭔가 외부적 착취나 지배 기구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유와 강제를 통해 자기 착취하는데 그게 효율적”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성과사회의 주권자는 자기 자신의 호모 사케르인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이를 통한 성과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처하는 게 호모 사케르가 아닐까? 그 정도로만 생각해봤습니다.

**김\*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성과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이 성과 안



에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에서 추방된 건데 어쨌든 이 성과사회는 진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좀 변화하려는 주체 이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자신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원:**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기 착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주:** 여기서 긍정은 제가 볼 때는 과잉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흐름에서 볼 때는 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못 하겠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김\*원:** 그럼 해보지도 않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는 도전에 있어서…?

**김\*주:** 근데 이게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경험을 위해서니까 근데 여기서는 계속 성과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과를 얻으려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못 하겠으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진:** 저는 좀 반대인 게 저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데 저는 약간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성과라기보단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취가 곧 성과겠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 과정도 물론 누군가에게 성취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성취는 아마도 성과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었는데 엄청나게 큰 실패를 겪은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겪고 나서 뭔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한 분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부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두 분의 딱 가운데인 것 같아요.

**김\*원:** 아, 저는 또 이것도 책 읽다 보니까 두 분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저는 이제 과거와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의 바쁜 저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느 정도의 표본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선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미래를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나요?

**김\*주:**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마다 할 수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모전 같은데 아주 많이 나가고, 동아리도 하고 대외활동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졸업시험에만 거의 매달리고 있으니까 졸업시험 공부 외에는 0인 상태인데 그래서 가끔은 지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맞는 시기가 딱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것을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도 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저는 이런 마인드가 너무 부러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방학을 예로 들면 2개월이 주어진다면 되게 자유로운데 학기 중에 힘들었으니까 쉬고 여행 가고 하는데 막상 ‘너무 놀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 (3) ‘휴학’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김\*주:** 휴학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휴학을 물어본 이유가 제 주변 친구는 1년 단위로 하던데 보통 휴학했을 때 ‘좀 시간이 아까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최\*진:** 아직도, 휴학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휴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주:** (휴학 경험 내용 생략)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1년 계획을 짜서 갔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계획을 짜지 않는 편이어서 근데 1년짜리 방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쉽진 않았지만, 막상 해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저는 시간을 돌린다면 또 휴학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휴학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의외로 ‘나는 휴학을 안 할 거야’라고도 해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김\*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휴학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휴학 시기는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대학교 4년을 쪽 다니냐 이거보다 한 번쯤은 쳐도 된다 생각하고, 대학생인 신분에서 쉴 수 있는 건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쉬는 것과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휴학은 늘 추천합니다.

**최\*진:** 저는 휴학은 한 번도 제 선택지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휴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이유가 다 사람들마다 다른데 대학생인 신분으로서 쉴 수 있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쉴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아직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졸업은 하면 소속이 없잖아요. 이 사회에 혼자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김\*원:** (휴학 경험 내용 생략) 근데 저는 휴학을 했다고 해서 정말 '실 휴'라는 “쉬었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유를 줬지만, 자유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쉬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기에 휴학은 자기 계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도전의 시간, “그 시간은 낭비하면 안 돼” 이런 시선도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김\*주:** 심의 기준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휴학하면서 6개월은 인턴하고 6개월은 거의 집에서 있으면서 봉사 활동하거나 멘토링, 아르바이트도 단기로만 하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잘 쉬었다고 느꼈어요.

## 2. 총평

**김\*원:** 저는 이 책이 2012년에 나온 책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고 제가 느끼기에 저자는 저한테 결국엔 “자각하고 반성해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좋은 것은 지나치면 좋지 못하다”라는 것과 ‘내가 좀 자기 착취에 가깝게 살아왔구나!’ 깨닫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주:** 책에서는 성과사회로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핑 사회로 발전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성과사회에서 도핑 사회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핑 사회가 아무래도 ‘자극적인 적인 것들에 좀 중독되어 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진:**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나 피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무엇보다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과사회의 주체가 저의 삶인 것 같아서 반성 아닌 반성하게 됐지만, 어쨌든 개인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이 10년 전에 쓴 것이지만 현재와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모습도 제시를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래의 사회 구조나 뭔가 우울 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는데 타자와의 만날 시간도 적어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소진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미래 시스템을 좀 더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원:**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미래에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진짜 심해질 것 같고, 요즘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삭막하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SNS가 너무 발달함에 따라 오히려 안 좋은 시선이 많아져서 더 걱정될 것 같아요.

**김\*주:** 일단 책에서 말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간의 유대관계는 적어졌지만, 관계는 많아진 시대에서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없이 얇은 관계를 모든 걸 알려 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적으로 본다면 요새 강조하는 게 지역사회 유대라고 지역사회 역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지역사회 유대가 증가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최\*진:** 저도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미디어 전공이긴 하지만, 미디어와 연관 지어 말하면 미디어가 사실 파급력이 크잖아요. 여기서 노출되는 게 어른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더 영향을 받으니까 성과적인 측면이 아니라 희망적인, 조금 정 넘치고 밝은 사회의 모습을 더 담아내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피로사회’를 읽고 진행한 2번의 토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 ‘각자 도사 사회’ 1부(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까지 읽고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참가자대표 : 김\*원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동동동 / 책을 영어로 하면 'book(북)' (북을 읽는 소리)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장 소 : 줌(zoom) 온라인 진행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원	학번	2019****	이름	김*주
	학번	2021****	이름	최*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오늘은 각자 도사 사회 1부와 2부 중 1부(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까지 읽고 줌 온라인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p> <p><b>1. 1부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까지 읽고 느낀 점</b></p> <p><b>김*주:</b> 저는 '각자 도사'라는 제목의 단어를 보고, '각자 도사'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물들어진 현대사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1부 '주제가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사회'라고 해서 챕터별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번 시간까지 읽었던 책에 비하면 이 책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 도사 사회는 죽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보여주는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피로사회를 통해 느낀 점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인지 사회에서 좋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삶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 피로감마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죽음이 단순히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느껴지면서 정부의 역할과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죽음과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노인의 죽음을 담고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p> <p><b>김*원:</b> 저는 1부를 읽고 나서 1부가 7개로 나뉘어 있는데 다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죽음'을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이 책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저는 정부의 정책처럼 탈시설화가 당연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할머니 삶의 조건보다는 할머니의 '취약함 그 자체'에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과 "실제로 공적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집의 비참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가족, 병원, 의사 등에 의해 엄청난 개입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요즘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배웠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다양한 사례를 이 책에서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b>최*진:</b> 저는 저번 시간까지 읽었던 피로사회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책은 주제별로 나뉘어 있어서 따라가기 원활했던 것 같고, 챕터별로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나 정책적으로 조금 해결의 필요성이 높은 주제들 다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가운데</p>							

가장 기억에 남는 챕터는 2번째 ‘노인 돌봄’에서 노인들에 관한 내용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노인을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우리는 마치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딱지를 붙인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사람인데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년의 불평등한 삶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죽음’에 대해서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 2. 인상적인 부분 이야기 나누기

### (1) ‘좋은 죽음’

**김\*주:**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부분이 다섯 번째 부분 ‘콧줄 - 콧줄을 단 채 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하는가?’인데 저는 콧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몰라서 단순히 아프면 다는 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워있는 상태(와상 생활)로 콧줄로 숨 쉬고 밥(수분과 영양 공급장치)을 먹으면서 10년쯤 살다가 사망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곳 요양원장이신 분이 자신은 “콧줄을 달고 죽고 싶지 않다”,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나이가 좀 더 들면 사전 의료의향서를 꼼꼼하게 써놓을 생각이예요. 가족들에게도 내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놓아야죠.”라는 말을 보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사회적 보편적 기준으로 끼여 맞추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첫 번째 부분 ‘집 -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였습니다. 책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말하면서 1990년대까지의 한국과 2000년대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더라고요.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하는 일이 많았고, 대다수 사람에게 돌봄과 죽음은 의료와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집안일’에 가까웠다고 말해요. 반대로 현재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복지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시설화가 강조되고,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집에서 죽으면 좋은 죽음이고, 시설에서 죽으면 나쁜 죽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롭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시설화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지역 사회 안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는 프레임 아닌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장소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김\*주:** 제 생각은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노인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수업에서 들었던 바로는 노인들은 보통 살던 지역에서 사는 곳이 열악하다고 해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보다는 요양원에서의 죽음을 자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돌봄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이유가 제일 크고 집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책에서 말하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지내다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만약 내가 말기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때 저는 치료를 중단하고 살다가 갈 것 같아요.

**김\*원:** 아, 편안함이 오히려 더 좋으세요? 그런 연명치료보다?

**김\*주:** 네, 저는 어차피 죽을 거,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가주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례에서도 봐도 “충분히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나인데 왜 거부를 하나?” 하는데 환자 본인은 항암치료도 너무 힘들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좀 공감했어요.

**최\*진:** 저도 \*주 님이 말씀하신 거와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가능하면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전에 미리 죽음을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 자신 관점에서 그런 것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분들이나 빈약한 형태의 주거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냥 ‘집에서 죽는 죽음이 좋은 죽음인지, 이러한 분들에게도 집이 좋은 곳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원:**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한 달 있다가 발견되는 고독사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만약 노년에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 때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 (2) ‘변화 필요’ (인력, 제도, 자기 결정권, 인식)

**김\*주:** 저는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두 번째 부분 ‘노인 돌봄-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데, 우리는 마치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딱지를 붙인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약간 사회에서 노인을 생산가능 인구로 보지 않고, 세상에 아이는 없고 노인만 많아지면서 우리가 부양해야 할 ‘집’ 같은 존재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책에서 한 요양원의 노인이 간식 시간에 딸기를 먹고 싶는데 딸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간호사 등의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양원이 좀 더 노인에게 안락한 공간을 선사하기 위해서 어떤 게 바뀌어야 할지 나오면서 의사, 간호사, 요양시설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몇 명에 대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 부분에서 요새 이슈인 의사의 정원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단순히 정책 몇 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등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원:**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가 많지 않고 급여도 적고 하는 문제에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오히려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가 비롯되어서 나타난 부분도 있었고, 책에서도 간호사 한 명이 40명을 돌본다는 것처럼 관리해야 할 환자는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빈번해지니까 최근에 CCTV 의무화를 했는데 그러면 ‘일하는 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노인 돌봄에 있어서 노동력, 인력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고충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진:** 저도 \*주님이 언급하신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남들이 먹을 때 같이 먹고, 남들이 잠잘 때 같이 자는 등 ‘시간표’를 잘 지키는 것이 요양원에서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며 자식들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짐이 덜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봤어요. 한분 한분의 삶과 개별적인 기호와 상황에 맞추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들의 취약함 그 자체에만 맞춘다는 걸 보고 저도 공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 삶의 질과 그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 업무의 질이 양립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입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주:** 책을 보면서 다섯 번째 ‘콧줄’ 부분에서 “노숙자와 행려병자를 위한 의료복지 시설이 있는데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맞지만, 모든 생명은 지속되어야 한다(굶어 죽어 놔두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최소 5년은 기다려야 입소 가능한 한 요양원에서는 콧줄은 절대 쓰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소자들의 식사 수발을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노숙인에게서는 부양할 가족도 없고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해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기준은 헌법의 명시돼 있는 기준이니까 그 부분이 마음 아프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진:**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번째 ‘호스피스 - 왜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되었나?’예요. 책 70쪽에 보면 “환자는 호스피스에서 의미 있는 생의 끝자락을 보내고 싶어도 체력과 시간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 의지로 치료를 연명하는 예도 있지만, 보호자들의 희망이나 기대, 의료진들이 놓지 않는 사명감과 책임감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김\*주:** 저는 좀 전에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의료진 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 말고도 그 사이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간호사 1명당 환자 40명, 그런데 요즘 강조하는 것이 환자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으로 환자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사회복지사나 또 다른 직업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아니다”라는 인식



도 환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보면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호스피스 이야기를 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언급도 있고, 저자가 “호스피스를 ‘죽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환자를 위한 ‘환대와 돌봄의 시공간’으로 더 과감하게 상상해야 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호스피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면 죽음의 풍경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습니다.

### (3) ‘안락사’

**김\*원:** 저는 또, 일곱 번째 ‘안락사 -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치료비나 병간호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환자가 건강할 당시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현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진의 생명 보호 의무도 이해가 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맞지만, 그래도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간병 살인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회에서 “안락사는 살인이다.”, “살인 방조다” 등 부정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김\*주:** 저도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책에서 나와 있었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니 가족들이 환자에게 의사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고 희석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안락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락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환자가 안락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안락사 전문가 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진:** 저도 안락사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락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면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치매나 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100%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보호자나 의료진의 견해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3년 11월 16일

참가자대표 : 김\*원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동동동 / 책을 영어로 하면 'book(북)' (북을 읽는 소리)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스터디 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원	학번	2019****	이름	김*주
	학번	2021****	이름	최*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오늘은 책 '각자 도사 사회' 2부 (보편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상상하다)까지 읽고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p> <p>1. 인상적인 부분 느낀 점 &amp; 감상평 나누기 활동</p> <p>(1) 사회적 취약계층</p> <p><b>최*진:</b> 지난 시간까지는 '사회'를 좀 더 다뤄졌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노인'분들의 얘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b>11번째 부분 '코로나19'</b>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주변에 가게가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주거 시설이 열악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국가적 위기가 몰려왔을 때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잖아요. 또,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노인분들이 야구를 보러 갔는데 온라인 예매로 해야 하는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엄청 일찍 가셨는데도 표를 구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가 너무 비대면, 간편함,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디지털 소외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자마자 이 기사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p> <p><b>김*주:</b> 저도 읽으면서 장례식장을 생각했어요. 보통 장례식장은 외곽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사실 차도 없고 버스로 가야 하는데 보통 장례식장까지 가는 버스도 거의 3시간에 한 번? 저희 동네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진 님이 하신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것도 좀 떠올랐어요.</p> <p>(2) 국가의 역할 vs 개인의 노력</p> <p><b>김*원:</b> 저는 코로나19 부분 읽으면서 “한쪽에서는 죽음에 호들갑을 떨고, 다른 쪽에서는 죽음에 침묵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 책에서 <b>단수로서의 죽음 vs 복수로서의 죽음</b>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구성하는 죽음의 단위는 단수로서의 죽음으로 인종, 나이, 계급, 성별, 지역,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언급되잖아요. 반대로 독박 돌봄으로 간병 살인이 일어나거나 어른의 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의 목숨이 앓아가는 일 그리고 초과 근무나 갑질 문</p>							

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랴부랴 미봉책을 꺼내 들고 때론 시큰둥하기도 한 것을 보기도 했다는 부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죽음의 양면을 보고 정부의 역할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책 165쪽에 보다가 좀 놀랐는데 **2022년에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자체마다 무연고 사와 고독사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중앙정부, 지자체, 경찰 간의 정보 협력도 원활하지 않아, 분명한 기준에 따라 분명한 기준에 따라 집계된 공식 통계가 없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가 이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영국인데 이려고 있다는 점, 작년에서야 통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죽음에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최\*진:** 맞아요. 책에서 그래서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안전망의 부재가 초래한 사회적 ‘고립사’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주:** 저도 이걸 보면서 **아직 국가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온전한 죽음을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개인이 자기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생명은 연장됐는데, 한국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한다.**”라는 글을 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음을 맞이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개인의 죽음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책 215쪽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춘천 사는데 춘천에서 묘를 하려면 자리가 없어서 10년 전부터 예약해야 해요. 심지어 좋은 자리를 하려면 돈도 거의 몇백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까지의 과정(노인 돌봄)도 문제지만 죽음 이후에 무덤 하나 하는 것도 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또, 책에서 보면 무연고자들이 죽으면 의과대학 해부용 시체로 간다고 해서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죽음 또한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율타리인데 개인의 죽음을 위해서 보장을 잘 못 해주는 상태가 되어 ‘죽으면 끝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 (3) ‘웰다잉’의 의미

**최\*진:** ‘웰다잉’이라는 말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자는 말 같은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웰다잉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자”라는 맥락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게 곧 사람들이 잘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죽음을 개인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김\*주:** 저는 웰다잉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좋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웰다잉은 시장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죽기 위해서 위치 좋은 곳에 무덤은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래서 경제력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원:**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노후에 치매나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돌아가신 분들 제사도 지내고 산소도 있는데 이제 매년 챙기는 것도 힘들고 부담이 되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산소도 필요 없고 유해를 강이나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웰다잉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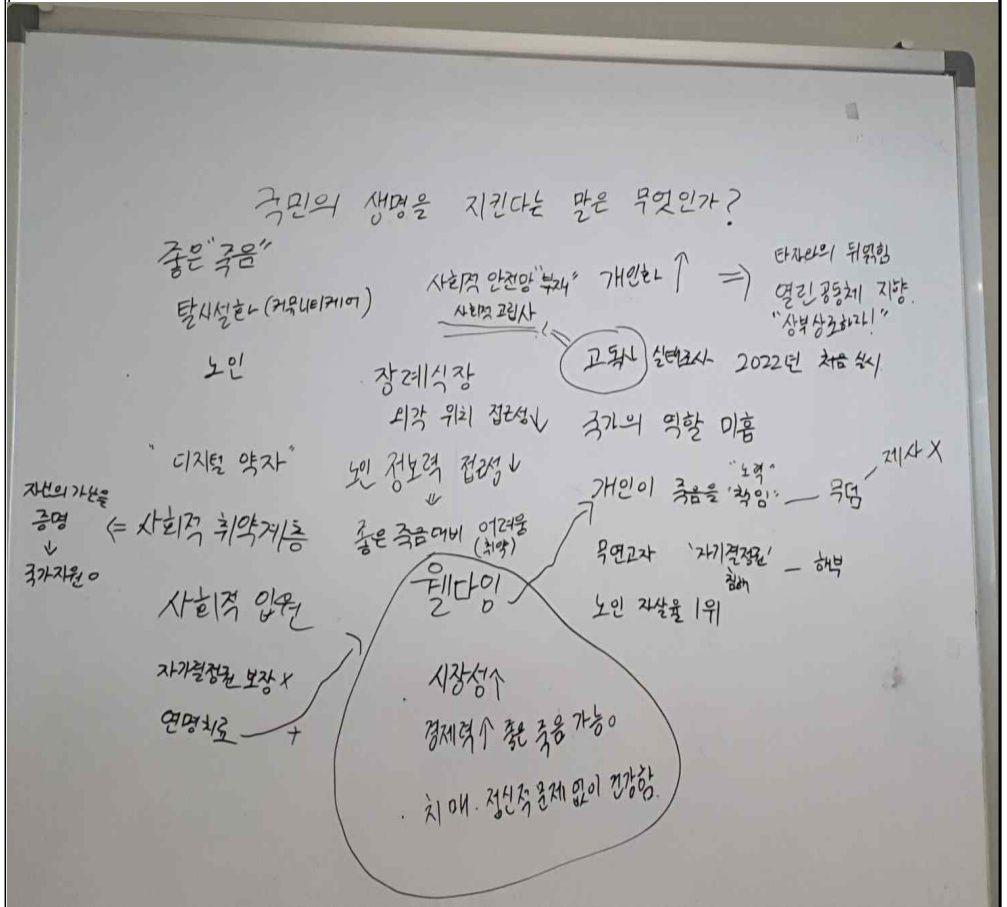
**김\*주:** 저도 실습에서 사례관리 했을 때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임대주택에 노인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버스 기사도 하셔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내 병원비에 웬만한 돈 다 쓰고 자식한테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제 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같이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노후를 준비하려면 20대 중반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게 개인의 책임이 너무 극대화돼서 힘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진:** 책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죽으면 즐기는 분위기 장례식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실 거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국 정서랑 맞지 않아서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에서 저게 무슨 경우냐”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 **(4)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공동체**

**김\*주:** 마지막 14번째 ‘영화’ 부분에서 극장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공동체성을 생성하는데 개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극장이라는 곳이 영화를 보고 한 스토리에 대해서 몰입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커뮤니티를 강조한 것 같아요. 책 244쪽에서 보면 “A가 B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B가 A에게 꼭 답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물을 받은 B가 C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또 C는 D나 E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선물로 연결된 사람들, 즉 공동체 속에 있으면 결국 A도 누군가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엔 너무 개인화돼 있는 세계에 각자 주목하고 있어서 고독사와 같은 문제도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화가 극대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자와의 뒤엎힘이자 열린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느낌.

(5) 토의 중 '키워드 정리'



→ 다음 회기에는 책 피로사회와 각자 도사 사회 요약 및 정리를 진행하며 책 관련 기사 스크랩 등을 통해 북클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참가자대표 : 김\*원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등등등 / 책을 영어로 하면 'book(북)' (북을 읽는 소리)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 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19****	이름	김*원	학번	2019****	이름	김*주
	학번	2021****	이름	최*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b>북클럽 마지막 활동으로, 책 '피로사회'와 책 '각자도사 사회'를 읽고 책 관련된 후속 활동(신문 스크랩, 칼럼, 인터뷰 모음 정리)을 진행했습니다.</b></p> <p>오늘은 책 피로사회와 각자 도사 사회를 통해 현대사회의 병폐를 찾고, 이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팀원들 모두는 마지막 활동으로 사회 이슈를 다루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신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 최*진, 김*주는 칼럼을, 팀원 김*원은 책 속에 담긴 인터뷰 정리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칼럼은 피로사회, 각자 도사 사회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인터뷰는 각자 도사 사회에 담긴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p> <p><b>★소감</b></p> <p><b>김*주:</b> 피로사회를 처음 읽었을 때는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북클럽에 넣길 희망하였고,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예전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는 북클럽 활동이 값진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p> <p><b>김*원:</b> 에브리타임을 통해 팀원들을 처음 만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책 두 권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로사회' 책은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이해가 잘 안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 팀원들이 자신이 서로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 설명해주시면서 이해하기도 편했고, 나와 다른 견해와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p> <p><b>최*진:</b> 책 읽기에 중요성을 알지만,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였는데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선정부터 토론까지 팀원들과 정해진 시간 및 범위에서 규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습관을 유지하여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지녀야겠다는 작은 바람도 생겼습니다.</p>							

2023년 11월 30일

참가자대표 : 김\*원

HOT  
NEWS

팀원

김\*원  
김\*주  
최\*진

심비우스 북클럽 20기

## ① 심비우스 북클럽 20기

# 북클럽 '둥둥둥' 성황리에 마쳐..

운영 기간 10월 6일 ~ 11월 30일

1. '성과사회' 압력을 개인의 반성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2. '각자도사 사회' 챗터별 질문 및 인터뷰
3. '각자도사 사회'를 통해 돌아보는 사회



## BOOKS

### 첫 번째 도서

피로사회(한병철)



### 두 번째 도서

각자도사 사회(송병기)

## 각자도사 사회



존엄한 죽음을 가욕하는  
불평등한 삶에 조건을 성립하다

송병기 지음

“우리의 삶과 죽음은 이대로 괜찮은가”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알아서 죽는 한국 사회,  
최후연유까지 순병거리 던지는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들

이재환

## 성과사회 압력을 개인의 반성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과사회의 압력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 중세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금지와 명령을 통해 생산력을 높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처럼 금지와 명령 같은 억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자유로운 사회를 자처한다. 이처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대놓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성과에 대한 욕심을 주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다고 느끼면서 무망감을 느끼고 있다. 무망감은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 '무력감(helplessness)'과는 다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의지에도 앞으로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죄책감에서 기인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서 발현하는 무망감은 다른 연령층보다 20대에서 많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대 사망률은 2018년 대비 9.6% 오르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재화된 20대인 C(Crisis: 위기)세대가 느끼는 고립감과 박탈감은 상당하다고 말한다.<sup>1)</sup>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강요받으며, 나아가고 있다. 마



치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모자라고 게으른 사람으로 보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들고 있다. 휴학(休學)이라는 뜻을 '설휴'에 '배울 학'이다. 말 그대로 '배우는 것을 쉬다.'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휴학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 만약 피로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회구조적인 문제 속 개인은 무너져가고 있다.

stock.adobe.com

1) [C세대]@무력감 넘어 '무망감'...그들, 벼랑 끝에 서다. 홍지은 기자. 2021.04.06.



# 각자도사 사회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송병기 지음

질문 모음

인터뷰 모음

Q. 집은 좋은 죽음을 보장하는 장소인가? ⓧ

A: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노인에게 집은 안식처라기보다는 고립된 장소다.

Q. '커뮤니티 케어'란 게 뭐니까? ⓧ

"포용적 복지국가로 향하는 담대한 걸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정책 담당 공무원 A씨

"정부의 정책은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수급자가 취약한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

Q. 노인이 그간 살아온 익숙한 장소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임종할 수는 없을까요? ⓧ

시설 거주 노인 환자 A씨: "여긴 찌꺼한 일상이야..."  
보호자 B씨: "시설 서비스가 좋지 못해요..."  
시설 요양보호사 C씨: "여긴 환자 한 명 한 명의 삶보다는 신체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Q. 노인은 국가의 짐인가? ⓧ

A: 모든 인간안 의존적인데, 우리는 마치 노인만 의존적인 존재인 것처럼 딱지를 붙인다.

요양원 간식시간, A 할머니는 신속하게 음식을 먹고 자리를 뜬다. ⓧ

"매번 팔죽 먹는 게 고역이야"  
"나는 간식 시간이 싫어"

그럼 왜 일찍 거실에 오셔서 억지로 먹으셨나요?

"이렇게 해야 일하는 분들과 딸에게 짐이 되지 않아"  
"남들 먹을 때 같이 먹고, 남들이 잠잘 때 같이 자야 해"  
"나는 딸기 좋아해..."

Q. 커뮤니티 케어가 뭐니까? ⓧ

구청 공무원 A씨:  
"현재 서비스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B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들의 참여입니다."

지역 의사협회장 C씨:  
"말도 안되는 정책이에요"  
"합리적인 왕진 수가 없이 어떻게 의사들이 노인 집에 갑니까?"

Q. 왜 호스피스는 '임종 처리' 기관이 되었나? ⓧ

A: 한국 의료라는 컨베이어벨트는 환자의 '몸'을 진단과 치료에 치우친 방향으로 급격히 회전시킨다.

## Q. 콧줄 단 채 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하는가?



환자의 상태와 삶의 질을 '충분하게' 향상시키지 않고, 수명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될 수 있다.

## ㄱ 노인요양원(노숙자와 행려병자를 위한 의료복지 시설) 사례



"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해요" by 간호사

" 길 곳 없고 음식물을 스스로 섭취할 수 없는 노인 환자는 우리 사회에서 최약자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한다" "환자가 굶어 죽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by 간호부장

## Q. 선생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데, 그때 여기 노인들처럼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비위관 삽입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 아, 저는 절대 싫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나이가 좀 더 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꼼꼼하게 써놓을 생각이예요. 가족들에게도 내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놓아야죠. "

by 'ㄱ노인요양원' 간호부장

## ㄴ 구립 요양원의 사례



" 콧줄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해요"

" 어르신들이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돌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소자들의 식사 수발을 들고 있어요"

by 요양원 원장

" 이곳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생의 마지막 집이니까요" by 간호사

"콧줄은 노인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의료예요"

"고통스러운 생애 말기를 연장하는 것은 보호자로서 할 일이 아니예요. by 보호자들

"식사 수발은 '전쟁'이다"

by 요양보호사들

## Q. 말기 의료결정,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



A: 환자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환자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환자에게 말기를 고지하고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by 의사

A 대학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음에도

"혈액종양내과 병동을 호스피스 병동 혹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by 'ㄱ 환자'



" 오늘 아침에 주치의가 와서 통보를 하더군요. 병원에서 더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병원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공간이에요." by 'ㄴ 환자'

"환자가 40대 초반인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지도 않고 호스피스로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저도 치료에 끈을 쉽게 놓으면 나중에 한이 될 것 같았고요."

by 'ㄴ 환자'의 보호자

Q. 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할까?

은모든의 소설 '안락'에서 이금래 할머니는

"다 떨어진 옷을 억지로 기워 입듯이 매일 자신의 몸을 약으로 기워나가고 있다"

"오늘 모이라고 한 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그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야. 난 못해도 앞으로 오 년 안에, 나머지 싹 정리하고 개운하게 갈 거야. 마음 딱 먹었으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2022년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퍼센트 조력존엄사(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 입법화 찬성

Q.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

: 제사가 전통과 관습의 이름으로 일상을 흔들지 않고, 일상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의례가 될 수 없을까?

Q.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일까?

: 한쪽에서는 죽음에 호들갑을 떨고, 다른 쪽에서는 죽음에 침묵하는 이 양극적 현실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 웰다잉의 유행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자, 죽음이 개인의 노력으로 대비해야 하는 일이 됐다는 방증이다."

Q. 웰다잉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품위 있게 죽어갈 권리'

'능동적인 죽음 준비 과정'

2020년 5월, 한국 첫 '냉동 인간'이 나왔다.

혈액암으로 사망한 80대 여성이었다.

그 아들에게 의뢰받은 러시아의 인체 냉동보존 회사는 시신을 냉동 보존했다.

Q. 50대 아들은 왜 사망한 노모를 냉동했을까?

"어머니가 보여준 생의 의지를 외면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앰불런스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가는 도중에 "아, 나는 아직 가기 싫는데 왜 너네 아버지는 나를 부르느냐"라고 외치고 심하게 몸부림을 쳤다고 한다.

Q. 영화관이란 무엇일까?

'함께 죽음을 보면서 삶을 실감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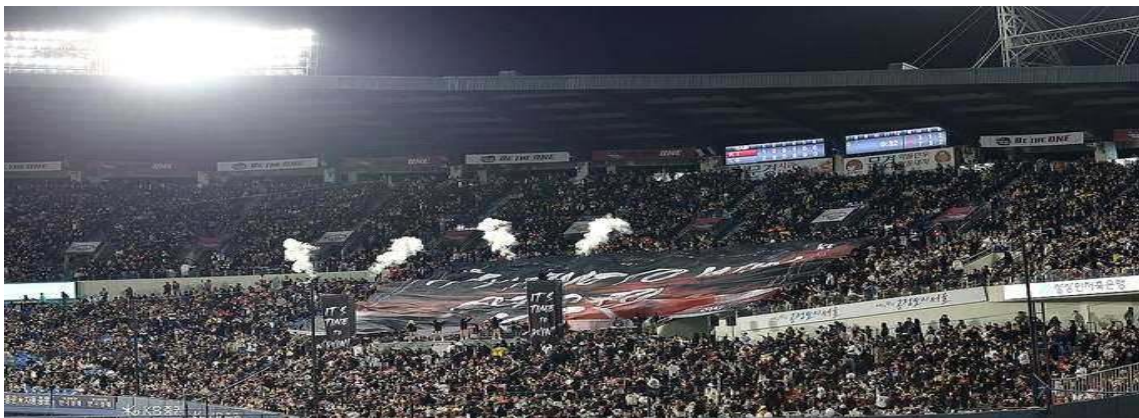
"영화관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수선했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 인터넷 발매에 노인들 소외… <각자도사 사회>를 통해 돌아보는 사회

책 ‘각자도사 사회’에서는 죽음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관련 정책, 불평등 문제를 통해 생애 말기와 죽음의 경로를 추적하며 한국 사회에서 죽음의 의미를 질문한다. 특히,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개된 현상임을 밝히고, 죽음의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전환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각자도사 사회에서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주변에 가게가 없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주거 시설이 열악한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이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키오스크(무인안내기), 온라인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소외되는 노인들의 사연 보도에 따르면, LG트윈스 팬인 이은섭씨는 최

근 야구 경기장을 찾아 매표소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매표소 측은 “고객님, 오늘 매진이에요”라고 안내했다. 이씨는 믿기지 않는 듯 “아무 데도 없어요? 외야도? 하나도 없어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매진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번 한국시리즈 경기는 온라인에서 사전 예매가 이뤄졌다. 취소된 표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선동 예매처 직원은 “취소 표 역시 온라인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게 풀리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예매가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안 팔린 걸 팔고 있는 셈이다. 또, 오늘 경기는 현장에서는 구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노인 팬들도 발걸음을 돌리기는 마찬가지였다.

LG트윈스 팬 최지남씨는 “인터넷에서만 전부 100% 예매하니까 칠십 된 사람들은 못 사는 거 아니겠나. MBC 청룡서부터 팬인데 못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장 판매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동태 LG트윈스 팬은 “현장 판매를 10%라도 하면 그 전날 매표소 앞에서 자정부터라도 기다려서 살 거다. 제 마음은 그렇다. 그래야만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도 표를 구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에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10% 정도는 현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비워봐도 될 듯하다”, “지금의 야구 문화가 있게 한 어르신들인데 나이 들어 정작 소외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



©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1차전 kt 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